

[종합·해설]

盧대통령 의지 재천명 '서남권 개발' 어떻게 되나

발목 잡힌 특별법, 국회 통과가 관건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공동혁신도시 착공식 참석차 8일 전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서남권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밝힘으로써 서남권개발사업 추진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서남권종합개발계획 실행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서남권개발계획의 진행 상황과 추이를 살펴본다.

한나라 "특정지역 특혜 법안" 반대 연내 통과 안될땐 장기 표류 불가피

◆정부 의지 재천명=서남권종합개발계획은 정부가 목포·무안·신안 권을 중심으로 ▲종합물류거점 육성 ▲신산업 성장동력 발굴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 등 서남권의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매미드급 프로젝트다.

이 계획은 8일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을 비롯, 호남고속철도, 목포 신외항, 무안·광주고속도로 등 사회간접 자본 확충을 바탕으로 서남권의 비고 우위자원인 농·수산, 해양자원과 지리적인 특성을 활용해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 도시조성(J프로젝트),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무안기업도시 등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특히 노 대통령이 이날 서남권발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읽고 말까지 밝히자고 천명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한 시간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이나 사업계획 작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다면 서남권 종합개발사업은 새

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한나라당 반대=서남권발전계획의 모태가 될 서남권특별법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정기 국회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추진 방침과 대조를 보였다.

한나라당이 통과를 약속한 연안개발특별법은 별다른 정부 예산이 들지 않는 데다 남해안과 동해안 등 전국 대부분의 해안 규제를 풀어 발전을 도모하는 반면, 서남권특별법은 대상 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특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건교부 소속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그동안 한나라당 지도부가 호남 구애에 나서면서 수차례 지역 협안 법안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중 행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향후 전망=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서남권특별법안은 8일 현재 상임위 논의에 앞서 거쳐야 할 법안심사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법안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킨



전남 서남권개발의 핵심 SOC인 무안국제공항이 8일 개항한 가운데 이날 건설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이 소년소녀가 106명을 초청, 40분간 전남 서남해안 일대를 도는 서남해안 일주비행을 실시했다. '희망의 비행기'로 이를 지어진 비행기에 탑승한 어린이들이 활활하고 있다.

(광주 전남 시진기자단)

다는 목표 아래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국회 정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는 '대통령후보 유고시 선거 연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남권 특별법'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정기국회 막판 타협 점을 도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남권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전남 지역 최대 혁신사업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차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범여 '원샷 통합'으로 가나

(후보단일화+당통합)

통합신당·민주당 물밀 협상 본격화

문국현 후보와도 단일화 논의 나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 및 통합을 한꺼번에 이루는 '원샷 통합'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 출마로 보수세력 분열이 가시화되는 마당에 후보단일화 및 통합으로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후보단일화와 대당 통합을 함께 이루는 원샷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때 '중도통합민주당'의 공동대표를 지냈던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신당 김한길 의원이 7일 자녀 회동을 갖고 후보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탐색전'에 돌입했다.

일단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통합신당은 당 대 당 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샷 통합'을 선호하는 반면, 박상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단일화를 통한 선거연합과 공동정부 구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원샷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인재 후보는 8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7대 대선에서 중도개혁

승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연설 직후 '신당이 중도개혁주의 노선으로 복귀하면 당 대 당 통합도 가능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상열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도개혁 세력이 힘을 모으기 위해 정동영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의 결단과 민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필요하다"며 "세력 통합이 개혁정권 수립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면 세력통합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후보 등록 등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원샷 통합은 내주까지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효석 대통합신당 원내대표는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원샷 통합에 참여한다면 박상천 대표를 공동대표로 모실 수 있고 지분 문제 등도 대폭 수용할 것"이라며 "통합 문제는 민주당과 대통합신당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역사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우선 협상중인 대통합신당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도 '반부패 혁신회의'를 고리로 한 단일화 논의를 준비중이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이 거리를 두고 있어 후보단일화와 세력통합은 상당한 진통과 함께 후보 등록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신당 선대위 혁신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이인재 후보와 문국현 후보와 함께하는 '원샷 통합'이 우선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과 통합을 우선 이루고 추후 문 후보 측과 세력 통합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부 당국자 "박람회 유치 여수가 모로코에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8일 여수의 2012년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전망에 언급,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지를 확보한 나라 중에서 일부는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막바지까지 최종 접경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박람회기구(BIE) 소속국 한국 공관을 발판삼아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한 뒤 "외교부

뿐 아니라 정부 주요 부서 장·차관 등을 BIE 소속 국가들에 특사로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함께 유치에 나선 모로코의 탕제 와 풀란드의 브로츠와프에 비해 여수가 지명도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정부와 업계의 도움, 유치위원회의 노력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좋은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盧대통령 '원샷 통합' 부정적 입장 피력

"신당·민주, 대선 전략적 제휴 바람직"

무안국제공항 준공식과 나주 혁신도시 기공식 참석차 전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범여권 대통합의 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샷 대통합'(후보단일화+정당 통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주목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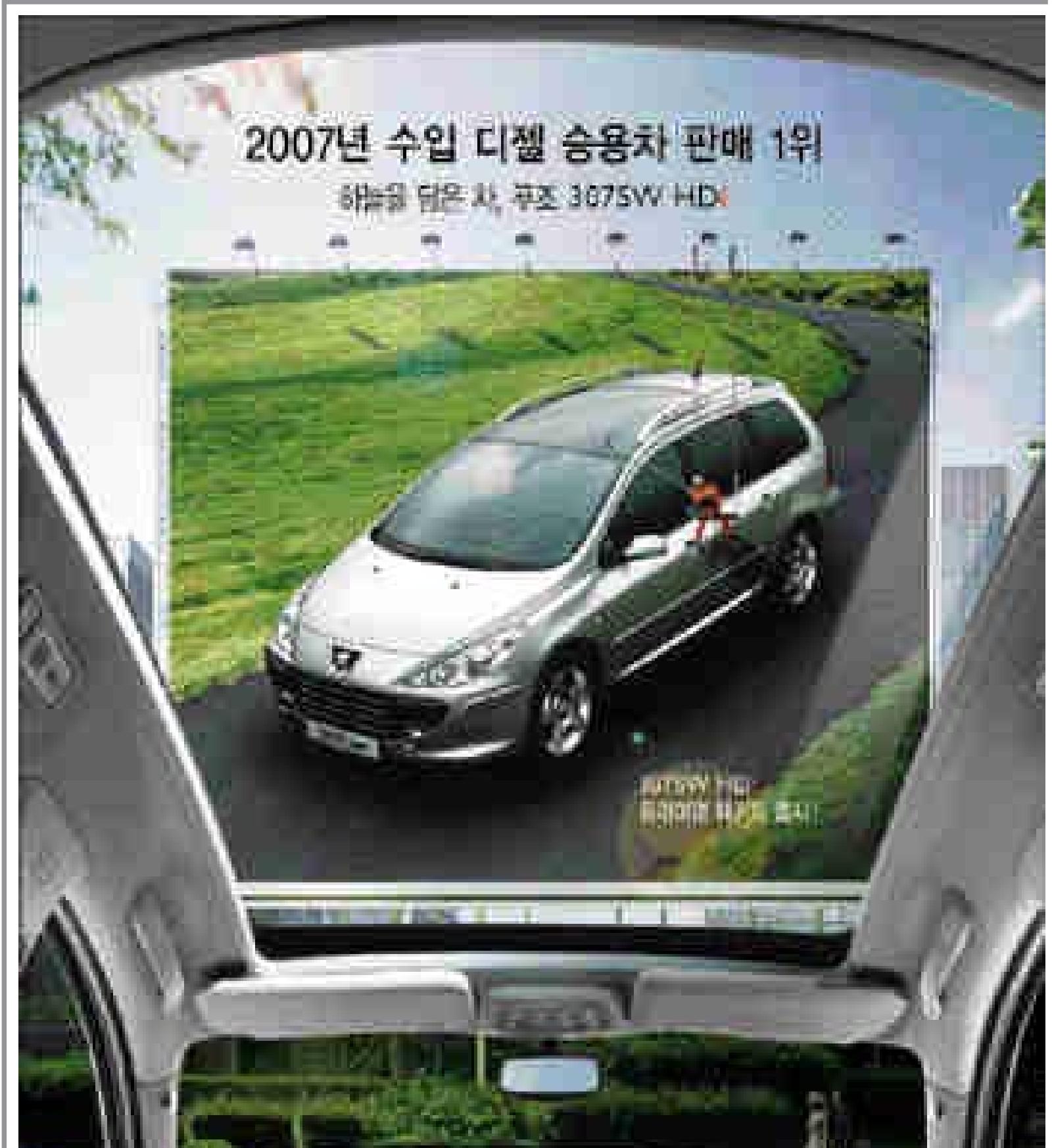
노 대통령은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이 기회에 말씀드린다"면서 "정당 간에 경쟁이 있는 정치는 정치품질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정책적으로 의미있는 경쟁을 하고 필요하면 제휴와 연대를 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뒤 열린우리당을 창당함으로써 호남을 배신했다'는 호남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호남이 미래 성장동력인 관광·레저·문화산업의 발전에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호남시대의 개막'을 천명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호남이 그동안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됐다는 점을 기른하면서 호남의 새로운 기회는 이 같은 소외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는 '역발상'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 산업기반은 농업에 있었지만 지배세력은 농민들이 아닌 사대부 계급이었다"며 "부대를 들고 있는 사람을 사이에 투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남이 소외된 것이 지난날의 역사"고 밝혔다.

/박차경기자 unipark@kwangju.co.kr



307 SW

